

III.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핵심 기조

- 2장에서 정리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관련 주요 문서, 연설, 발표 등을 분석하여 트럼프 행정부 대외 정책의 핵심 기조를 다섯 가지로 도출함
 - 패권경쟁의 재개: 힘에 의한 평화의 유지 전략
 - 미국 우선주의
 - 양자 관계 중심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증진 전략
 -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집중
 - 이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불관용

1. 패권경쟁의 재개: 힘에 의한 평화의 유지 전략

가. 패권 안정론의 실패¹⁰⁾

- 패권 안정론의 등장과 유지
 - 공산주의 붕괴와 냉전 시대의 종식으로 미국이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운영시스템의 우월성이 입증되었다고 평가됨
 - 경쟁없는 미국의 패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된 패권의 유지가 세계 질서와 안녕에 기여한다는 공감대 형성
 - 국제 정치 상황이 평화적이고 우호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경쟁자를 상정하지 않음
 - 국제주의적 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전파하고 이에 기반하여 국가를 재건하는 데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동의가 존재

10) 이 절은 2018년 미국 핵태세 검토보고서와 국방전략 관련하여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대외정책연합에서 발표한 내용(2018.6.6)에 기반하여 정리했음.

- 패권 안정론은 실패했다고 평가
 - 미국이 단극 체제 패권 안정론에 져어 있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군사적, 경제적 성장 전략을 통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상황이 만들어짐
 -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9/11과 경기침체를 거치며 미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받으며 단일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을 잃음

나. 패권 경쟁의 장으로서의 국제정치의 부활

-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 질서를 흔들고자 하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 이와 더불어 불량 국가 (rogue state) 북한과 이란,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위협 조직들에 의해서 국제정치는 이미 패권을 향한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평가¹¹⁾
 - 미국이 핵 비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과는 달리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핵 무력 증강에 기초한 공격적인 군사 정책과 전략들을 발전시켜 왔음¹²⁾
 - 또한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하고 핵개발과 미사일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이란은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개발의 가능성을 보임¹³⁾
- 〈미국국방전략 2018〉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핵심적인 도전으로 수정주의 국가들에 의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패권경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
 -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며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약탈적인 경제정책으로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
 - 러시아는 주변국들을 군사적으로 침범하고 경제, 외교, 안보 정책들에서 주변국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에 도전
 - 북한은 UN의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질서를 흔드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란은 중동 지역의 안정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음
- 국제정치에 패권 경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힘에 의한 평화 전략이 요구됨

11)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 p. 27

12)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2018, p. 1

13) 위 보고서, p. 1

다. 힘에 의한 평화의 유지

- 취임 후 외교 정책의 기초를 발표하며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가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언명
 - 더욱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힘을 통한 평화의 원칙이 필요함
 - 미국의 패권 경쟁에서의 승리가 국제사회의 갈등과 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임
- 미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 지출 증대
 - 미군의 재건: 1991년 이후 해군 전투함과 공군 전투기의 점진적인 감소 추세가 계속되었으나 다시 강력한 군을 만들어 군사적 우위를 튼튼하게 할 것임
 - 무기 개발과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국방부 예산안(2017년 6390억 달러, 2018년 6860억 달러, 2019년 7500억 달러)은 신무기 도입과 연구개발 등에 큰 비중을 둠¹⁴⁾
 - 핵무기 개발: 트럼프 대통령 2018년 국정연설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 개발하여 핵억지력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발표¹⁵⁾
- 군비 경쟁의 가속화 예상: 오는 8월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가 마무리되면 군비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

2. 미국 우선주의

- 경제 민족주의: 힘을 통한 평화를 기반으로 한 외교, 안보 정책의 효율 증대와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통해 국제적 경쟁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¹⁶⁾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탈퇴, 한미 FTA 재협상, 북미자유무역 (NAFTA) 탈퇴 및 재협상 등 기존 무역질서에서 미국의 손실 증가를 지적하며 미국의 이익 계산에 기반한 경제 정책 추진

14) 국방부 예산안 자료 (dod.defense.gov),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이후 의회에서 책정한 국방부 예산은 차이가 있다. 일례로 2018년 국방부는 6860억 달러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의회는 국방부 예산으로 7160억 달러를 승인 결정.

15) The White House, "President Donald J. Trump's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1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s-state-union-address/>)

16) 김진하 2017, 민정훈에서 재인용. (민정훈, "트럼프의 등장과 동북아 안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9권 제2호, 2018년, p. 207)

-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현실주의 노선 채택: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좌우되지 않는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 접근, 주요 흑자국 통화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과 평가절상 요구, 공정 무역의 이름으로 미국 무역 적자 해소 추진
- 국제주의에서의 탈피: 국가가 주요 행위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
 - 이란 핵협정 탈퇴, 파리 기후협약 탈퇴, UN, NATO, WTO 등 국제기구와 국가의 주권을 넘어서는 국제협약 등에 대한 불만과 국제협력기구에서 미국의 역할 감소를 강력하게 주장
 -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과 상호작용의 중요성,¹⁷⁾ 특히 양자관계 중심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증진이 미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함을 강조: 고립주의로의 회귀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
 -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비용 분담의 강조, 공정한 무역 관계 추진¹⁸⁾
- 구체적 전략으로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 추진¹⁹⁾
 -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앞세운 전통적인 대외 전략의 한계: 미국이 국제 기구, 대의 정부, 시장 개방, 인권 등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대의 추구는 한계를 가짐
 - 미국이 모든 책임과 비용을 전담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헤게모니 전략은 실효성을 잃음
 - 미국은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국가에 대항하는 새로운 대전략으로 전환 필요
 - 역외균형 전략의 목표: 미국을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어 전지구적 차원의 우위를 점하는 것
 - 역외균형 전략의 핵심: 유럽, 동북아시아, 중동 등에서 각 지역별 힘의 균형 상태가 지역 국가들의 감독과 견제를 통해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의 서반구 헤게모니 권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미국의 국방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

17)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다자적인 경제 압력이 타겟 국가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경제 제재 등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여 더 효과적이라는 것에 동의.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 p. 34)

18) 조금 다른 관점에서 김관옥은 미국을 쇠퇴하는 패권국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을 패권유지의 장기화 방안에 대한 일환으로 파악. 쇠퇴하는 패권국들은 패권유지를 위해 (1) 부상하는 도전국을 아직 남아있는 우월한 군사력을 이용한 예방전쟁으로 약화, (2) 패권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도전국과 타협, (3) 패권국의 역할을 축소해서 국제적 공공재 제공의 비용을 절감하고 체제유지에 대한 부담을 다른 국가들에 전이시켜 패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타국에 대한 자원추출 강화와 부담전이를 통해 기존의 미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한다고 평가. (김관옥,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국제정치연구』 제20권 제1호, 2017년, pp. 77-98.)

19)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95 (4), 2016, pp. 70-83.

- 역외균형 전략의 효과: 미국의 국제 안보를 위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미국의 이익에 집중할 수 있게 함,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우지 않는 지역 균형 전략과 각 나라의 주권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역외균형 전략은 미국을 향한 테러리즘의 위협을 감소시킴

3. 양자 관계 중심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증진 전략

- 미국의 이익에 유리한 힘의 균형을 찾기 위한 전략적 동맹관계,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모색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냄
 -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의 손을 묶고 주권을 포기하는 대규모 합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나 양자 무역 합의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교역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강조²⁰⁾
 - 국가 안보 전략: ‘마음이 맞는 (like-minded)’ 파트너 국가를 모색하고 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이익 증진을 추진하겠다는 전략 명시²¹⁾
- 국경을 넘어선 공동 영역의 전략적 이용을 촉구
 - 바다, 우주, 사이버 영역 등 공동 영역(common domains)이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함을 강조
 - 바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핵심 원칙이고, 바다와 우주 탐험은 상업적, 과학적 이유로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함을 강조

4.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집중²²⁾

-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확산시키며 중국의 이해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재정립하여 미국의 지위를 위협

20) APEC 정상회담 연설문

21)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다자주의적 합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전환과 함께 상호 이익이 존재하는 것에 동의하는 파트너 국가와의 양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명. 참고로 “마음이 맞는 (like-minded)” 파트너십의 모색은 국가안보전략에서 7번 이상 언급됨.

22)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분석한 강량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이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선별적 개입정책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이 경우 (1) 지정학에 기반을 둔 세력균형정책이 정책입안에 항상 가용되고 있다는 점, (2) 대내외인론에서 거론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정책은 비현실적인 인식이라는 점, (3)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미군의 전략자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이 보고서의 주요 분석과 궤를 같이 함. (강량, “최근 미국 내 외교안보정책 관련 쟁점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103호, 2018년.)

-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항하여 새로운 지역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역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
 - 동북 아시아: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의 역할이 중요, 동북아의 번영과 안보에 뉴질랜드가 갖는 핵심적 역할, 새롭게 떠오르는 인도와 일본, 호주를 묶는 4자 협력의 추진 모색
 - 동남 아시아: 필리핀, 타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미국의 주요 시장이 될 수 있는 국가들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고자 함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가 갖는 영향력 유지
 - 항행의 자유 보장, 자유롭고 개방된 바다, 제약 없는 교역, 공정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무역 합의 등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증대 모색

5. 이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불관용

- 급진주의적 이슬람을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도전 과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 주장
- 이란을 극단주의 이슬람과 ISIS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 이란에 대한 불관용 정책 채택
 -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함께 이란의 핵개발 기술 확장 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
 -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중의 하나인 이란 협정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서 탈퇴
 - 이란의 이슬람 극단주의 지원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조 요청

IV.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평가

1. 트럼프 개인에 집중된 국가 정책의 문제점

-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 정책 운용에 따른 미국 대외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과 이로 인한 미국 대외 정책의 신뢰성 저하²³⁾
-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분야 정책 집행이 대부분 행정조치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국회를 통한 입법화 시도는 미미한 수준²⁴⁾
-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원칙 없이 모호하고 따라서 미국의 대외 정책의 큰 틀을 규정하기 어려움²⁵⁾
 - 대외 정책의 예측불가능성은 동맹국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어렵게 하고 미국의 신뢰를 저하시킴
 -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대외 정책은 국제 사회에서 도덕적 지원을 힘들게 함

2. 트럼프 독트린으로서 자리 잡음

-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국제 정치 시각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는 주장
- 트럼프의 정책들이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며, 미국의 경제력 회복과 상호주의

23)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평가하며 이코노미스트지는 예측불가능성이 갖는 정책적 이점도 있음을 지적. (The Economist, "Unpredictability has some advantages" (2018년 1월 25일))

24)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과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국방연구』 제61권 제3호, 2018년, pp. 103-129; 서정건, "미국 국내 정치와 북한 비핵화 이슈: 합의(agreements)에서 이행(commitments)으로," 『국방연구』 제61권 제3호, 2018년, pp. 85-102.

25) Elliott Abrams, "Trump versus the government: Can America get its story straight?" *Foreign Affairs* 98(1), 2019, pp. 129-137.

에 입각한 무역 정책 등은 링컨, 맥킨리²⁶⁾를 지나 레이건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정치 수사와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²⁷⁾

- 안톤은 트럼프 독트린의 네 기둥을 제시함²⁸⁾
 - 국제문제에 대한 엘리트 리더십을 탈피한 대중주의 접근
 -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폐기: 국제주의와 초국가주의가 미국과 같은 기성 권력에게 부과하는 비용이 이익을 넘어섬
 - 미국의 국가 이익에 기반한 일관성 추구
 - 전 세계를 동질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이해가 아님을 명시
- 트럼프 독트린은 국제 정치의 장에서 각 국가가 현실주의적 전망을 가지고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국가주의의 현실화로 이해해야 함
- 따라서 트럼프 독트린이 표명하는 가치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보수주의가 추구해야 하는 외교 정책으로 채택,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²⁹⁾
 - 세계는 이미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었고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수정주의적 국가들이 지역별로 부상, 특히 중국이 향후 미국의 패권에 강력한 도전국가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
 - 국가의 주권 위의 권한을 갖는 초국가 기구의 전지구적 거버넌스의 확장과 합법적 권위를 갖는 최종 중재자로서의 국제법 적용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는 이름으로 발전해오면서 보수주의의 가치로부터 멀어짐
 - 주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독립성과 자치, 자유로운 기업 경제 체제, 미국의 종교와 생활 방식의 보존과 유지가 국제사회에서도 관철되어야 함

26) William McKinley, 미국의 25대 대통령으로 (1897년-1901년) 보호 관세를 통해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금본위제를 고수하며 미국의 경제 우위 우선정책을 이끔.

27) John Fonte, "The 'Trump Doctrine' is the future of conservative foreign policy," 2018. (<https://amgreatness.com/2018/12/14/the-trump-doctrine-is-the-future-of-conservative-foreign-policy/>)

28) Michael Anton, "The Trump doctrine: An insider explains the president's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232, 2019.

29) John Fonte, 위의 글.

V. 미국 대외 정책의 한국에의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 미국 대외 정책 전망

- 미국의 국제 정치 인식(패권 경쟁의 도래)과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의 함의
 -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서 중국을 인식, 따라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
 - 힘을 통한 평화의 전략의 핵심은 국방력의 확장이므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내세운 미국 주도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 됨
- 미국에게 유리한 아시아 지역 세력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집중 전략이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주는 의미
 -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항하여 새로운 지역 질서를 정립할 필요에 따라 미국이 지역 국가들과 파트너십 구축 노력 증대
 -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안보 체제 구성
 - 항행의 자유 보장 촉구, 자유롭고 개방된 바다와 제약 없는 교역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증대 모색
-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
 - 동맹 국가와 파트너 국가들에게 미국이 제공하는 지역 안보 비용의 공정한 분담 요구가 높아질 것임
 - 통상과 환율 관련 중상주의적 압박의 증가: 공정함을 내세워 미국 무역 수지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한 관세 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재 증가 예상

2. 한국 정부에의 시사점

- 미중 경쟁의 심화와 이에 따른 복합적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
 -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세력 균형자 역할을 자처한 미국의 중국 견제는 중견국인 한국의 경제와 안보 영역에서 자율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 이에 따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과 경제파트너십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 따라서 이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 가능성
 - 그러나 중국과 미국 모두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게 동맹의 강화를, 중국은 한국에게 중국 친화적인 입장을 갖기를 요구하며 한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난점
 - 더불어 사드 배치 등과 같이 미국이 대중 견제용 무기와 장비를 한국에 배치하고 항행의 자유와 해상 안보 구축에 적극 기여하기를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의 전략적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한국의 기업들이 선택을 강요받고, 사드 배치 때와 같은 중국의 경제적 압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집중 전략은 동맹국의 군사적 역지력 강화를 요구
 - 군사 시설, 무기, 기술 등의 현대화, 군 규모 확장, 대응력 향상 등의 요구에 따라 미국의 신형무기의 구입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안보 협력 체제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하고 이와 함께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와의 통합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
- 지역 안보의 공정한 비용분담 요구에 따른 한국의 주한 미군 비용분담 증가
 -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부터 한국의 분담금 증가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2018년 2월 전년 대비 787억 원 증가한 1조 389억 원으로 합의, 그러나 협정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향후 분담 금액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³⁰⁾
 - 그러나 대통령 선거 캠페인 시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온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 증가에 따른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2018년에 이어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도 주한미군의 축소를 제한하는 항목이 상하원에서 모두 채택됨³¹⁾
-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미국의 역외균형 전략의 적극적 활용 모색
 - 동아시아 지역 관련 역외균형 전략의 핵심은 지역 내 미국에게 유리한 힘의 균형 상태를 조성하

30) 한겨레, “한미 방위비 분담금 ‘1년짜리 협정’... 인상 압박 또 임박,” 2019년 2월 10일. (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81544.html)

31) Korea Herald, “US House draft bill preventing reduction in US Forces Korea, June 11, 2019. (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611000604)

- 는 것이므로 한국은 한미관계의 다차원적,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한국의 위상을 확보하고 한국의 안보와 관련한 한미동맹의 공고화 필요성을 주장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주한미군 유지와 비용에 관하여 한국의 입장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에도 초점을 맞춰 협상에 임하여 미국을 설득해야 함
 - 또한 북핵 문제를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적, 지구적 이슈로 만들어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으로 확장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외교 전략의 틀을 기획해야 함. 대북 억제와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장기적인 외교정책으로 견고한 한미동맹 강화 강조
 -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중의 제도적 협력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중 협력 하에 지역 다자 경제기구 출범 가능성과 기존 경제협력 합의의 확대·통합 개편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장기적 전략도 마련해야 함
 - 동시에 미중을 제외한 중견국들 간의 외교적 협력을 추진하는 노력 또한 필요. 미중 무역 분쟁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 시장을 다양화하는 것, 동남아시아 국가들(ASEAN 국가) 또는 남미에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 적극 모색해야 함

참고문헌

- 강량, “최근 미국 내 외교안보정책 관련 쟁점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슈브리프 103호, 2018.
- 김관옥,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 『국제정치연구』 제20권 제1호, 2017.
- 민정훈, “트럼프의 등장과 동북아 안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9권 제2호, 2018.
-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과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국방연구』 제61권 제3호, 2018.
- 서정건, “미국 국내 정치와 북한 비핵화 이슈: 합의(agreements)에서 이행(commitments)으로,” 『국방연구』 제61권 제3호, 2018.
- 서정건, 차태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외교의 잭슨주의 전환,” 『한국과 국제정치』 제33권 제1호, 2017.
- Abrams, Elliott, “Trump versus the government: Can America get its story straight?” *Foreign Affairs* 98(1), 2019.
- Anton, Michael, “The Trump doctrine: An insider explains the president's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232, 2019.
- Fonte, John, “The ‘Trump Doctrine’ is the future of conservative foreign policy,” 2018. (<https://amgreatness.com/2018/12/14/the-trump-doctrine-is-the-future-of-conservative-foreign-policy/>)
- Ford, Christopher A., “Great power Competition and Nuclear Strategy,” 2018. (www.state.gov/t/isn/rls/rm/2018/283085.htm)
- Mearsheimer, John J.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A superior U.S.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95 (4), 2016.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2018.
-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
-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p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2018.
- U.S. Department of State, “Great Power Competition and Nuclear Strategy,” 2018. (www.state.gov/t/isn/rls/rm/2018/283085.htm)

Abstract

Analyzing Foreign Polic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rump has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6 with the slogan of “America First” and his foreign policy has been understood as a departure from the liberal internationalism which the US has been thought to pursue traditionally. Two years into the Trump presidency, there are still confusion and discussions about what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s.

This report aims to help understanding the Trump foreign policy by analyzing the main addresses of president Trump and official documents on US foreign policy.

The documents and addresses which this report analyzes include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2018 Nuclear Posture Review, 2017 UN general assembly address by president Trump, and 2017 APEC Summit address by president Trump.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central documents and addresses, this report suggests that there are five foundational key words of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1) peace through strength, (2) America first, (3) promoting bilateral alliances and partnership, (4) strategic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region, (5) intolerance over Iran and Islamic extremism.

Also this report explains what these strategies of the US foreign policy mean to the Northeastern Asia and the Korean government.

Key Words: US Foreign Policy, Peace Through Strength, America First, Bilateral Partnership, Indo-Pacific Strategy

INSS

전략보고

August 2019. No. 39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B/D
☎ 02-6191-1000 📠 02-6191-1111 🌐 www.inss.re.kr